

무주지역 낙화놀이 연행의 지역적 특징과 문화적 의미

이영배(안동대)

1. 무주읍 낙화놀이와 부남면 낙화놀이

무주 안성낙화놀이는 1938년 일제강점기 때 마지막으로 연행되고 단절되었다가 2007년 5월 31일 복원되어 '무주 안성낙화놀이'라는 명칭으로 2016년 10월 14일 전라북도 무형문화재 제56호에 지정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무주 안성낙화놀이는 안성면 두문마을에서 유래한 마을풍속이지만 현재는 무주군을 대표하는 전통 불꽃놀이로 자리 잡았다. 실제적인 낙화놀이 연행도 마을축제로 연행되기도 하고 무주반딧불축제의 대표적인 공연콘텐츠로 연행되고 있다.

그런데 자료의 측면에서 마을축제/놀이문화의 맥락과 다른, 무주읍 낙화놀이 연행 자료가 있어 주목된다. 이는 과거에도 현재와 같은 이중적 연행의 문화적 조응 관계가 성립될 수 있는 것이어서, 두 가지 구조로 연행되는 이 지역 낙화놀이의 현재를 역사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으로 의미가 있다.

이 글에서는 1871년 고종 8년(1871)에 쓰인 『조선시대 포쇄일기』를 통해 무주읍에서 낙화놀이가 어떻게 연행되었는지 검토하고 그 외 부남면 낙화놀이 구술자료를 통해 무주지역 낙화놀이 연행의 역사문화적 양상¹⁾을 정리한 후, 두문마을 낙화놀이 연행의 특징과 의미를 논의하고자 한다.

1) '조선시대 포쇄일기'에 나타난 무주읍 낙화놀이

'포쇄(曝曬)'는 사고(史庫)에 소장되어 있는 왕조실록(王朝實錄)과 왕실족보인 선원록(璿源錄) 등의 서적을 점검(點檢)하며, 햇볕을 쬌고 바람을 쐬어 습기 제거와 부식 및 충해를 예방했던 일을 말한다. 이 포쇄는 조선시대에 3~5년마다 시행했는데 주로 봄이나 가을에 이루어졌다.

『조선시대 포쇄일기』는 1871년 네 곳의 사고²⁾ 중 무주(茂朱)의 적상산사고(赤裳山史庫)와 봉화(奉化)의 태백산사고(太白山史庫)의 책들을 포쇄하기 위해 담당관으로 발탁된 박정양이 현지를 방문하여 거기에서 듣고 본 일을 가사 형식으로 쓴 것을 말한다.³⁾

- 1) 무주읍과 부남면의 낙화놀이 관련 논의는 박대길, 「조선후기 적상산사고 연구」, 전북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0; 현진주, 「무주 안성낙화놀이의 재현 양상과 문화적 의미」, 안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8 참고, 두문 낙화놀이는 이영배, 「놀이 전통의 문화적 기반과 특징」, 『감성연구』 12, 전남대학교 호남학연구원, 2016, 139~198; 「두문 낙화놀이의 문화적 특이성과 미적 특징」, 『실천민속학연구』 27, 실천민속학회, 2016, 353~396쪽 참고
- 2) 조선시대 네 곳의 사고(史庫)로, 오대산사고(五臺山史庫)·적상산사고(赤裳山史庫)·정족산성사고(鼎足山城史庫)·태백산사고(太白山史庫)가 있다.
- 3) 박정양, 최강현 옮김, 『조선시대 포쇄일기』, 신성출판사, 1999. 원래 제목은 '박학수포쇄일기 권지단 이고 『朴庭陽全集(박정양전집)』 제1책, 559~758쪽에 실려 있다. 지은이 박정양(朴庭陽, 1841~1905)은 호가 죽천(竹泉), 본관은 반남(潘南)이다. 아버지는 음보(陰譜)로 여러 고을의 목사(牧使)를 지낸 제근(齊近)공이고, 어머니는 한산이씨(韓山李氏)이다. 죽천은 26세에 고종 3(1866)년 병인별시문과(丙寅別試文科)에 급제하여 승정원(承政院) 가주서(假注書)가 되었고 40년 동안 여러 청환직(淸宦職)을 지냈다.

박정양은 무주의 적상산사고의 실록(實錄)과 선원록(璿源錄)들을 포쇄하기 위해 1871년 8월 27일부터 10월 10일까지 총 43일간의 여정을 수행한다. 그 기간 중 9월 11일부터 9월 16일까지 6일간 무주에서 머무르며 포쇄를 마친 후, 무주를 떠나기 전날 밤 남대천에서 낙화놀이를 보고 기록을 남겼다.

십오일 이른 아침	형지안(形止案) ⁵⁾ 마친 후에
호국사(護國寺) ⁴⁾ 구경가자.	여기서 멀지 않네. (중략)
저녁밥 먹고 나니,	본관(本官)이 와서 보고
이말 저말 한담(閑談)하고,	이윽히 앉았다가
내일은 떠난다니,	섬섬하기 측량(測量)없소
<u>전부터 사관(史官)들이</u>	<u>예 와서 머물 때에</u>
<u>번번히 낙화(落火)하여</u>	<u>읍례(邑例)가 되온지라.</u> (하략)

실록의 봉안과 포쇄 및 고출(考出) 등을 위해서 고위급의 당상관(堂上官)을 비롯하여 왕명을 받은 관원들이 자주 방문하게 된다. 주연(酒宴)은 기본적으로 제공되었으나 그들을 소홀히 대접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무주만의 특색 있는 볼거리를 보여줄 필요가 있었다. 이에 따라 준비된 것이 낙화놀이였고 이는 공식적이고 의례적인 행사로 자주 연행되었다.

오늘날 저녁 천기	월백풍청(月白風淸) 경(景) 좋으니,
<u>청강(淸江)에 배를 띄고</u>	<u>상류(上流)에 낙화(落火)하여</u>
하룻밤 소창(消暢) ⁶⁾ 하면	동파적벽(東波赤壁) 부러울까?
<u>거화등대(炬火等待)</u> 다 하였고,	<u>방석(方席)불도</u> 준비하니,
맑은 밤 좋은 달을	“허송(虛送) 말라” 부탁하네.
고맙도다. 주수정념(主倅情念)	감사함은 극진하나,
집 떠난 지 수 십일에	정회(情懷)가 소삭(消索)하여
강산에 흥이 없고	풍월에 마음 없어
<u>낙화(落火)도</u> 볼 뜻 없고,	<u>선유(船遊)</u> 재미 더 없으니,
긴 밤을 편히 자고,	조발소주(早發蘇州) 하오리라.
본관말씀 들어보소	“이것이 내 정이라.
전별(餞別) ⁷⁾ 로 차린 놀음	아니 놀고 무엇하리?”(하략)

무주현 수령은 박정양이 무주를 떠나기 전 마지막 날 밤, 잔치를 베풀어 그를 위해 대접하려 했다. 위의 가사를 보면 낙화와 선유가 함께 이어지지만 별도로 구분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상류

4) 현재 무주군 적상면에 있는 절. 안국사에서 1Km 거리에 있는데, 인조 21(1643)년 이조판서 겸 성균관 대제학 이식(李植, 1584~1647)공이 적상산사고의 수호사찰로서 건립을 건의하여 창건.
5) 조선시대, 각 사(司)에 속한 공노비를 세밀히 조사한 노비 대장을 이르거나 의례(儀軌)·실록(實錄)·선원보(璿源譜) 등을 지방의 사고(史庫) 등에 소장하는 일인 봉안(奉安)에 대해 기록한 것과, 서적과 문서를 일정한 기간마다 별에 달리고 바람을 쏘이는 일인 포쇄(曝曬)에 대한 기록을 작성한 것을 말한다.
6) 심심하거나 답답한 마음을 풀어 후련하게 함.
7) 잔치를 베풀어 작별한다는 뜻으로, 보내는 쪽에서 예를 갖추 작별함.

(上流)에 낙화(落火)하여'에서 언급되는 '낙화'는 두 가지로 추측해볼 수 있다. 하나는 불을 붙인 어떤 물질을 높은 곳에서 아래로 던지거나 하는 유형이고, 다른 하나는 어떤 용기에 태울 것을 넣고 불을 붙여 수면에 띄우는 유형으로 추측할 수 있다. 그런데 그 다음 절에 '방석(方席)불로 미루어 봤을 때, 상류에서 낙화한다는 것은 물에 흐름에 따라 방석불을 흘려보낸 것을 말하는 것으로도 생각된다.

일엽소선(一葉小船) 낭청(郎廳) 치고

이편 저편 강 언덕에

상류의 방석불이

기생이 앞에 서고,

본관 함께 달려 들어

사양인들 또 할슨가?

동행하는 여러 사람

휘장(揮帳)을 떠들고서

양안(兩岸)의 거화(炬火)들은

상류의 방석불이

온 강이 통홍(通紅)하여

질탕한 가는 풍악

맑고 맑은 호적소리

홍군 취수(紅裙翠袖) 기생들은

시인 주봉(詩人 酒朋)두어 손은

풍경도 좋거니와

즐겁도대! 이 놀음이

포진(鋪陳)도 잘 하였다.

수백 거화(炬火) 늘어세고

장강(長江)을 뒤엎었다.

풍악(風樂)이 자아지며,

손목 잡고 일어서니,

우정우정 딸아가니,

일제히 배에 올라

범범중류(泛泛中流)하여 보니,

일제히 밝았으며,

물결대로 흘러 오니,

노는 고기 다 보인다.

영산 오성(靈山五聲) 자아지고,

팔난곡조(八難曲調) 종을시고

악산동대 부르는데,

적벽 청풍 읊으오니,

흥취도 절로 난다.

객회(客懷)를 잊었구나. (하락)

위 대목에서는 물 위에 잘 갖추어진 배를 띄우고 언덕에는 수백 개의 횃불을 설치해놓고 장강의 물결처럼 수많은 방석불을 띄워 화려한 경관을 연출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여기서 언급되는 방석불은 방석 모양의 그릇에 심지를 두고 불을 붙이거나 짚자리 방석을 붙여서 흘려보냈던 것일 수 있다. 하지만 짚자리 방석이였다면 물에 젖어 가라앉았을 것이다. 따라서 달걀불보다는 크기가 크고 방석모양의 그릇에 초와 같은 것을 넣어 띄웠던 것이 아닐까 한다.

이와 같이 박정양이 보고 쓴 '포쇄일기' 속 낙화놀이는 1871년 8월 15일 당시 무주현 남대천에서 수령과 현민들이 공무로 파견되어 나온 관료를 대접할 목적으로 선유와 낙화놀이를 연행했던 것으로 정리된다. 이는 가사에 언급되었듯 반드시 '포쇄'라는 공무와 연관되어 있다기보다는, '번번히' 연행된 것으로 관이나 중앙에서 온 손님들, 즉 사관들이나 관료들이 무주를 방문했을 때 그들을 대접하기 위하여 기생들을 대동하고 배를 띄우고 다양한 종류의 불놀이를 즐겼던 것이라 할 수 있겠다.

2) 무주군 부남면 대소마을 낙화놀이 연행의 구술기억

무주지역에서 또 하나의 낙화놀이로 부남면 대소마을 낙화놀이가 있다. 이 낙화놀이는 유재두(남, 77세)에 의해 다음과 같이 제보된 바 있다.

특히 여기 두문리가 제일 심하게 했다고 하더라고 오래됐지. 우리가 이거 어려서 저거 아버지가 서당선생님을 했기 때문에 더 잘 알거든요. 그래서 인제 낮에는 학교 다니고 밤에는 새벽에는 서당 다니면서 인제 쉬는 때 이때 나와서 했는데, 6.25 사변 지나고도 한국전쟁 끝나고도 몇 년 하다가 끝났어. 6.25사변 한국전쟁 이후에. 그렇게 해왔어 우리가 직접 해왔어. 우리가 그렇게 해왔어. 줄은 아까 내가 얘기했잖아요. 보름에 작은 보름 전후해서는 물이 없잖아. 그래서 뒤에 가면 크게 이렇게 줄을 달아가지고

대소마을, 두문마을, 사전마을 그 위에 다 했당게요. 서당 있는 마을은. 그때는 놀이가 없으니까 그런 놀이를 안 할 수가 없다니까. 그전에는 팽이치기, 썰매타기, 봉화불놀이 근데 봉화불놀이가 유행처럼 다해 지역에서. 소금이 튀면 투투 투 떨어지고 겨울에는 그래놓고 사월 초파일에는 눈에 비치니까 지금 강에 달아 놓은 거 같지. 똑같은 소리예요 명칭이 다른 거지. 봉화불놀이 낙화놀이. 그런 거 보면 봉화에서 오지 않았나. 그전에는 낙화불놀이라고 했어. 봉화불에서 오지 않았나.⁸⁾

제보자의 아버지는 부남면 서당에서 아이들을 가르쳤고, 제보자는 서당을 중심으로 낙화놀이가 연행된 사실을 명확히 기억하고 있다. 일제강점기를 지나 6.25 전쟁 이후까지 낙화놀이가 연행되었고 이와 같은 낙화놀이의 연행은 “대소마을, 두문마을, 사전마을 그 위에 다 했당게요. 서당 있는 마을은”과 같이 인근 지역에서 일반적인 것이었다. 점화제로는 소금을 사용했다고 기억하고 있으며 이전에는 ‘낙화불놀이’라고 불렀다고 기억한다. 제보자 생각에는 낙화놀이가 봉화에서 유래하지 않았나 추정하기도 했다.

대소마을 낙화놀이 연행 시기는 작은 보름을 전후로 정월보름 세시풍속과 연결되어 있다. 보름에 아이들이 팽이치기, 썰매타기 등을 하고 노는 것처럼 겨울에 하는 낙화놀이가 있었고 사월 초파일 또는 단오에, 논물을 대고 난 뒤 그 위에서 연행한 낙화놀이가 있었다. 둘 다 줄을 걸어 솥봉지를 만들어 달고 불이 타들어가고 툭툭 튀며 떨어지는 것을 보고 즐겼다는 점에서 공통적이다.

낙화놀이 식이야. 그전에 창호지나 다른 게 아니라 족보를 뜯어서 했어. 막 뜯어다가 했거든 모르게 그래서 막 혼나고 그랬어. 그 전에는 족보나 아니면 통감이라는 그런 큰 책을 뜯어다가 혼도 나고 쫓겨나고 했는데, 그 전에는 종이가 없으니까 옛날에 없잖아 그거밖에 없잖아. 그거 아주 어린 사람들은 우에 사람들이 하나까 따라했고, 그 사람들이 나가면 그 다음에 우리가 시켰고 그랬지. 그러니까 우리 때는 많이 했어요 근데 그전에는 더 많이 했다고 하더라고. 물어보면 그 전에는 놀이가 없으니까 서당에서 쉬는 날 혹은 책걸이라고 해가지고 졸업식 하는 날 이런 날 저녁에 많이 했고 책걸이라고 해가지고 책을 떼내면 그 때 놀이하고⁹⁾

옛날에는 종이가 귀했기 때문에 놀이에 종이를 사용하기 쉽지 않았다. 어른들 몰래 “족보나 아니면 통감이라는 그런 큰 책을 뜯어다가” 낙화봉을 만들었는데, 들키면 혼이 나거나 쫓겨나기도 했다고 한다. 또는 서당에서 책 한 권을 다 공부하면 ‘책걸이’이라 하여 잔치를 하고 낙화놀이를 연행했다. 이 경우의 낙화놀이는 서당의 중요한 행사와 결부되어 연행된 서당풍속의 한 가지임을 의미한다.

2 두문 낙화놀이의 전통성과 미적 특징

두문의 낙화놀이는 전통적으로 사월 초파일에 주로 했지만 생업 주기에 따라 비교적 농사가 한가한

8) 유재두(남, 77세)의 제보(2016년 7월 12일, 두문마을).

9) 유재두(남, 77세)의 제보(2017년 8월 29일, 부남면사무소)

때에 연행되었다. 따라서 두문마을 낙화놀이 연행 시기는 사월 초파일을 중심으로 그 앞으로 삼월 삼짇날이 선택되기도 했고 역시 농사의 절반이 마무리되어 가는 시기 중에 택일이 이루어져 칠월 칠석에 하기도 했다. 일제강점기에 예전부터 전승되어오던 낙화놀이를 경험했던 박찬훈은 삼월 삼짇날에 하는 것은 보지 못했지만 사월 초파일과 칠월 칠석에 낙화놀이를 보았다고 했다. 그는 연행 시기의 택일과 관련하여 “고때가 한가하거든. 옛날에 사월 초파일이면 그때 모를 다시고 있기 때문에 모도 안 심었다고 못 심었다고 그때 춘디 한창. 어떤 때는 단오 지내고 나서 모 심었어.”¹⁰⁾라며 계절적 요인과 생업적 요인이 기초가 되어 낙화놀이가 연행되었음을 강조했다.

예전에 낙화놀이는 서당골 앞 논에서 이루어졌다. 지금은 지형이 바뀌었지만 예전에 서당 앞에는 오래된 소나무 두 그루가 있었다. “옛날에는 냇가가 있고 가운데 논이 있는데 사월 초파일쯤 되면 모도 안 심고 그 여그다 물을 대놓고 요쪽 그 높은 나무에다 새끼줄을 매야. 거기다 인제 달아나가면서 대놓고 하나씩 하나씩 달아다 불을 매기서 인제 새끼줄을 땡기서 팽팡하니 해놓고 그리 해서 그때 많이 달아야 백개. 지금 걸이 많이 달지는 못하고”에서 보는 바와 같이, 내와 논을 연결하여 물을 대서, 두 그루의 소나무를 기둥 삼아 새끼줄을 매었고, 제작해온 낙화봉 백여 개를 차례로 점화하여 줄에 걸어 낙화놀이를 즐겼다 한다.

낙화봉의 복원 과정에서 화약을 섞어보기도 했다. 성냥의 점화제를 잘게 부숴 넣어보았다. 그러나 연소 과정에서 낙화봉의 숯가루가 쏟아져 버렸다. 폭파력이 강하여 봉지가 터져버리면서 들어있던 숯가루가 쏟아져 버린 것이다. 낙화봉에서 소금이 터지면서 함께 흩뿌려지는 숯가루의 불꽃을 좀 더 화려하게 만들어 볼 의향으로 화약을 넣는 실험을 해보았지만 결과가 좋지 않아 한번의 시도로 끝났다.

이와 같이 복원과정에서 낙화봉에 화약을 넣는 등 여러 가지 실험이 있긴 했지만 결국 낙화놀이를 복원하게 한 가장 큰 자원은 전통적인 방식의 제작과 실연이었다. 즉 낙화봉 만드는 형태는 옛날 그대로이다. 만드는 과정 또한 옛날과 한가지이다. 한지의 경우도 예전에 무속인들이 쓰던 한지와 같은 지질을 지냈다. 쉽게 구할 수 있는 한지는 너무 두꺼워 이전 어른들이 사용하던 적당한 두께의 한지를 찾아 제작해서 쓰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했을 때라야 점화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이다.

소금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한번의 화약 실험이 실패하고 오히려 그전에 불꽃의 촉매제로 사용하던 소금으로 돌아왔다. 두문의 낙화놀이에서 사용하는 소금은 이 지역 외에는 볼 수 없다. 현재 전승되는 지역의 낙화놀이에서는 소금보다는 화약을 넣어 그 효과를 내고 있다. 점화제인 짓도 과거와 마찬가지로 쭉을 비벼 말려 사용하고 있다. 낙화봉이 완전히 연소되는 효과를 내기 위해 짓을 조금 더 넣거나 불꽃이 터지며 흩날리는 불꽃의 걸을 따라 쭉 향기를 진하게 내기 위해 땀쭉을 사용하고 있기도 하지만 원재료의 속성과 만드는 방법은 전통에 의거하고 있다.

기록이 없으니까. 마산 거기도 파배기, 함안도 가본게 거기도 파배기더라고요. 근디 그것이 왜그냐면 이 그냥 한게 이 것이 자꾸 툭 고만 쏟아져버리는 수가 있는데, 그렇게 한게 이것이 쏟아지질 않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여러 번 해봐서, 우리는 그렇게 하는 줄도, 하는 거 보던 안 했죠 그때는. 그래서 땡그른거 아노. 쏟아지는 걸 방지하러 파배기 형태로 한 건데. 그때 낙화봉이라는 이름도, 그때는 낙화봉이라고도 안 했어요. 이걸 뭐라고 이름을 지어야할 거 아니냐고 해서 낙화봉이라고 하자 그래서 낙화봉이라고 써 버린거여. 그기. 그때는 뭐라 불렀는지도 몰라. 그냥 그렇게 맨드라서 그렇게

10) 두문마을 낙화놀이에 대한 제보는 박찬훈에 의한 것이 대부분이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인용하는 경우에 관련 정보를 생략했다.

하는 것만 봤지. 그때 그러믄 그래가지고 이름을 해야되겠는데, 뭐라고 할 거냐고 해서 낙화봉이라고 하자고 그래서 낙화봉이라고 했는디 전국적으로 통일이 되드라고 거 함안도 낙화봉이라고 하고 전부 거기도 낙화봉이라고 하더라고 이제 거기서도

낙화봉의 형태가 파베기라는 점은 문제로 지적될 수도 있다. 그러나 왜 이렇게 형태의 변화가 있었는지에 대한 의문은, 전통성을 어디에서 찾을 것인가의 문제와, 복원의 과정에서 이 지역만의 고유성이 무엇을 통해 지속되느냐의 문제와 관련하여 해명해 볼 수 있다. 엄밀히 말해 낙화봉의 형태 변형은 전통의 변질이 아니다. 낙화봉의 제작 과정과 그 방식은 전통에 의거해 이루어지고 있다. 다만 낙화놀이 연행에서 낙화봉의 효과를 어떤 방식으로 내느냐와 관련하여 변화가 있는 것이다. 그것은 기능과 효과의 문제이지 전통의 문제는 아닌 것이다. 현재 복원되어 전승되고 있는 그 어떤 민속문화도 실연의 과정에서 전통 혹은 고유성이 아무런 변화를 겪지 않고 유지되고 있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두문마을 낙화놀이의 주 재료인 낙화봉은 전통적인 방식에 의거하여 제작되었고 그 시연 과정에서 현재의 문화상황이 요구하는 필요성을 반영하여 변화되었다고 보는 것이 사실에 부합할 것이다.

전통적인 방식으로 낙화봉을 제작하여 낙화놀이를 연행하더라도 그것이 만들어내는 불꽃의 광경과 효과는 현재 전승되고 있는 다른 낙화놀이에 뒤지지 않는다. 오히려 화약을 쓰지 않고 소금이 촉매가 되어 만들어내는 불꽃의 향연은 어느 지역보다 화려하다. 뿐만 아니라 만들고 이동하여 사용하는 일체의 과정이 간단하고 효율적이다. 줄의 설치와 낙화봉의 고정 등에서 이동식 기둥과 자건거 바퀴 등을 맞춤으로 제작해서 쓰고 있긴 하지만, 그 과정이 번거롭지 않고 간편하다. 이러한 간편성과 효율성은 예전에 논에서 소나무를 이용하여 줄을 매고 낙화놀이를 걸어서 즐기던 방식과 견줄 만하다.

다른 지역의 낙화놀이는 낙화봉을 제작하는 일도, 그것을 설치하는 일과 낙화봉에 불을 대는 과정도 매우 번거롭고 불편하기 그지없다. 일례로 함안의 경우를 보면 “함안이나 이런 데 가서 본게 그건 고정 설치를 해서 어디 가서 이동공연은 못하겄다라고 탄 디 크게 하는 것이 그럴 수백에 없더라고 그 사람들, 그 불 짓을 안 대야. 쪽배를 타고 방죽에다 줄줄이 매놓고는 아침부터 설치를 해야. 11개조가 점화를 해도 뭐 한시간이 넘게 걸려. 우리는 10분이면 다 끝나.”와 같은 구술에서 알 수 있듯이 매우 번거롭고 수고스럽다.

박찬훈 : 아침부터 그렇게 종일 매달고 인제 그놈 매달아서 줄을 매달아 놓고는 저녁에 이제 일몰이 되고나서 요새 시간으로는 한 여덟시쯤 되면, 어둠이 땅거미 될라고 한게 불을 붙이기 시작하더라고 한 거 본게, 뭐 팍팍 불 풍기는 것도 없고 주르륵 주르륵 늘어뜨는 것 그것뿐이더라고 여기 소금이 이렇게 우리는 풍기주는데, 그것이 없고 바람에 따라서 약간, 근게 낮추기 때문에 바람도 잘 타도 안 하고, 주르륵 주르륵 쏟아지는 것 이것 뿐이더라고

최일섭 : 청원인가 거기서 했던 사람이, 포항을 같이 가게 됐는데, 근데 인제 여기 꺼만큼 화려하거나 간단하지 않다고 좋지 않다고 여주에 본두리 낙화놀이 거기서도 오셨다고 했어요, 근데 거기는 숯가루가 쏟아지고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 와서 하는 거보고 아주. 그때 함안에 갔는데, 그 불꽃도 다 좋은데 잘 안 타서 그런지 광목에다 기름을 먹이는 것 같더라고요.

다른 지역 낙화놀이는 복원 과정에서 많은 실험을 거쳐 적당량의 화약을 넣는 방법을 고안하여 시연을 하기도 했고 심지를 길게 넣어 거기에 기름을 먹여 사용하기도 한다. 그러나 두문의 낙화놀이는 생활에서 얻은 재료를 이용하여 놀이하던 민속놀이의 특질이 고스란히 복원·연행되고 있다. 경기도 여주 본

두리의 경우에는 불꽃의 폭파가 낳는 놀이의 효과가 없다. 이 효과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지점은 현대화된 놀이의 방식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전통적인 낙화놀이가 그러한 방향으로 양식적 발달을 해왔다는 것이다. 본두리의 불꽃은 '주르륵 주르륵' 흘러내리는 방식이지만, 두문의 낙화놀이 불꽃은 소금이 촉매가 되어 '팍팍' 터지는 효과가 살아 있다. 이 점에서 자연성과 전통성에 의거하여 양식적으로 전개되어온 불꽃놀이의 기능이 살아 있다 하겠다.

바람이 불으면 여기서 보든 불이 치솟는 수도 있어. 불이 춤을 춰 불이. 보통 보든 밤바람이 높은 데서 낮은 데로 불 거든. 기압이 여기 낮으니까. 여기서 보든 동쪽에서 서쪽으로 온다고 산 높은 데서 낮은 데로 바람이 불거든. 밤바람은 그러. 바람에 따라서 잘 설치할 하든 좋아.

소금이 만들어내는 미적 효과는 자연스러운 가운데 발현되는 화려함에 있다. 특히 야외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소금의 폭파력은 공기의 흐름과 만나면서 극대화된다. 숯가루가 재가 될 때까지 타는 과정에서 불숯가루가 바람과 만나면 불꽃이 치솟는다. 이 치솟는 형용은 마치 불꽃이 춤을 추는 것같은 경관을 창출한다. 특히 이 지역은 기압이 낮아 바람이 동쪽에서 서쪽으로 불어온다. 높은 산에서 낮은 평야지대로 바람이 분다. 낙화놀이가 밤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부는 밤바람은 낙화놀이가 펼쳐내는 불꽃의 향연을 극대화하게 된다. 따라서 이 바람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적당한 높이와 적당한 장소에서 바람에 따라 낙화봉을 설치하게 된다.

물에다 하는 이유는 물하고 적당한 거리라든, 물이 흐르게 두 가지 효과 배가가 나. 불빛이 더 밝게 보이고 그러. 그래서 인제. 물에서 보통 한 5미터 정도 떨어지면 그기 좋아. 왜냐면 물어림이 배 효과가 나와. 기 높이 하든 물 어림이 적지. 그래서 어른들이 지혜가 있드라고. 여름에는 물이 있어야 시원하거든. 자기 나름대로 인제 그, 면서기가 있는데 일 정 때, 그 양반도 참 우리 어릴 적에 냇가에서 그 낙화놀이 띄워놓고 술도 먹고 놀았어.

낙화놀이의 불꽃과 물이 어울려 만들어내는 효과도 크다. 낙화놀이가 물가에서 연행되었던 까닭은 불꽃의 너울거림이 물과 만나 이중으로 배가 되기 때문이다. 물이 불빛을 비추어, 혹은 불빛이 물에 비껴 하늘과 물, 이 두 가지 공간의 차원 속에서 또는 그 사이에서 서로가 서로를 반영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쏟아진다. 이러한 불꽃놀이의 미적 효과는 반영과 재현, 어울림과 교차로 설명할 수 있다. 반영과 재현은 불꽃이 흩어져 휘날리면서 물가에 하나의 영상이 만들어진다는 것이고 그렇게 뒀으로써 물 속에서 또 하나의 불꽃놀이가 재현된다는 의미이다. 어울림과 교차는 두 개의 차원이 어울려 즉 공중과 물속이 교차하는 표면에서 서로가 서로를 쫓고 쫓기는 불꽃의 향연이 펼쳐진다는 의미이다. 이러한 미적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물과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관건이다. 적당한 거리에서 불꽃놀이가 연행될 때 그 효과는 배가되어 불빛도 더욱 밝게 보이는 효과가 있다. 제보자는 “물에서 보통 한 5미터 정도 떨어지면 좋아.”라고 말한다. 이 거리에서 물어림이 극대화되기 때문이다.

그런디 가만히 생각해보면 농악은 동적인 놀이라. 여기 농꾼들, 농부들이 좋아하는 그런 놀이고 농악은 옛날에는 거 사당때 그런 놀이고 농악은 동적인 놀이고 이진 정적인 놀이여. 그거 해놓고 냇가에 앉아서 시조나 읊고 뭐 이라던 놀이. 이기 궁중에서 시작해서 벼슬아치들 나중에 낙향하든 고향에 가서 했던 기라. 그전에는 유생들이 좀 유림이 좀 강하고 많은 디가 있었지. 낙화놀이라는 건 옛날에 참 선비들 놀이라. 가만히 보든 뭐 이것이 그렇게 화려하지도 않고 요

관하지도 않고 은은하면서 사람의 마음을 당겨. 그걸 가만히 보고 있으면 빨리 들어가 자기도 모르게. 시인묵객들은 볼 만 하드라고 표현도 제대로 못하고 표현력이 없어서. 그전에 어른들이 참.

두문의 낙화놀이는 정적인 놀이이다. 그 정적인 속성이 낙화놀이의 미학이 기대는 정서적 기반이다. 이와 달리 대표적인 농민의 문화는 농악이다. 그런데 농악은 매우 역동적이다. 악기를 두드리고 때려 만 들어내는 역동적 리듬에 농민의 신체가 반응하여 솟구치고 요동쳐 매우 역동적인 정서를 만들어낸다. 이 정서를 가리켜 흔히 신명이라고 한다. 이 신명풀이의 정서적 효과가 농악의 미학이 기초하고 있는 기반이다. 낙화놀이는 이와 반대이다. 그렇지만 그 반대의 정서적 기반 속에서 정적이면서 동시에 역동적인 리듬을 만들어낸다. 다른 점은 그것이 시각적 효과라는 데 있다. 그 효과는 반영과 재현, 어울림과 교차라는 낙화놀이의 미적 원리에서 발현된다. 두 개의 면에서 생기는 이러한 움직임이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역동적인 감흥을 만들어낸다. 좀 더 말하자면 불꽃과 불꽃, 불꽃과 바람, 불꽃과 물어림, 불꽃과 사람 등등의 양상이 역동적으로 어울리고 교차됨에 따라 감흥이 고조되어 흥취를 자아내고 그것이 때에 따라서 선비의 마음에 시심을 불러 내어 시를 읊조리게 하고 권주가를 부르게 하여 정적인 가운데 역동적인 신명을 풀어내는 것이다.

이러한 흥취 속에서 예전의 어른들은 이 정적인 놀이가 주는 미적 혹은 놀이적 쾌감에 젖어 낙화놀이를 연행하고 전승시켰다. 제보자는 어린 시절 이러한 낙화놀이의 미적 가치에 매료되어 그것을 한동안 잊지 못하다가 여러 곡절을 거쳐 복원에 성공하여 두문마을 고유의 문화적 유산을 전승시키게 된 것이다. “답답한게 냇가에 시원하니 그만 술잔이나 차려놓고 가만히 바라보면서 어쩐지 빨려들어가, 은은하게, 자기도 모르게 그리 빨려 들어간단게. 그때만 해도 어릴 적 기억이 참 환상적이더라고 그때 본게. 불방울이 찌르륵 찌르륵 옛날 유성이 흐르듯이 불빛이 쭈르륵 쭈르륵 흐르는 것이 소금이 팍 폭발하듯 쭈나오고 쭈나오고 그렇거든.”에서와 같이 환상적이었던 두문마을 전통의 놀이문화를 기억하고 있다가 복원해보자는 권유를 받고 기억을 더듬어서 복원하게 된 것이다.

기억되고 있는 두문마을 낙화놀이의 전통적인 방식은 두문 서당의 교육과 유희의 연계 문화로서 이루어졌다. 비록 서당의 행사지만 당시 서당의 존재방식이 마을공동체 혹은 지역공동체를 기반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마을주민들 모두가 다양한 방식으로 참여하였다. “없는 사람은 아침절에 나무 해다가 모닥불을” 놓고 뽕나무가 타 숯이 되는 대로 꺼내 마른 흙을 덮어 켰다. 그 다음 숯가루를 내어 낙화봉을 만들었다. 혼자서는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 사람들이 일손을 모아 진행해나갔다. 서당에서는 강을 하고 강이 끝나면 아이들은 자치기, 공차기 등을 하면서 놀기도 했다. 제보자에 따르면 낙화놀이를 할 때 마을 사람들은 모두 자발적으로 나와 함께 했다 한다. “있는 사람들이 한번 베푸는 셈 치고 쌀도 한 두 말씩 내고” “선비들은 서당에 앉아서 강이 끝나고 나면 술잔이나 나누고 하지만” 고지거나 없는 사람은 오전과 오후에 낙화놀이를 준비했다. 그리고 “저녁에는 모두 나와서 낙화놀이 구경”했다 한다. 요컨대 낙화놀이하는 날은 “반상도 양반도 없”는 날이었다고 한다. 특히 빈부의 극심한 격차에서 오는 마을의 폐단을 없애기 위해 ‘서당계’로서 문창계를 조직하였기 때문에, 그러한 마을사적 맥락에서 연행되는 낙화놀이는 마을민들이 결속하는 계기이자 결과로서 그 의의를 지녔다.

최일섭 : 마을에 귀농하신 분들한테 처음에 들어오시면 그런 말씀을 드려요. 마을에 공동행사도 많고 일도 많고 그러니까. 이제 그 그런 거를 행사랑 작업할 때 꼭 참여를 해야지 된다. 같이 작업하고 이런 일하고 그러면서 이제 금방 친

해지고...(중략)...어르신들은 여기서 낙화봉을 만들어주고 원재료를 만들어주시는 일을 하시면서 그러면 서로 같이 상생해서 갈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겠냐. 그래서 지금 마을 공동 작업은 일을 잘하고 못하고 연세가 많고 적고를 떠나가지고 여기 와서 앉아 계실 수만 있으면 다 나와가지고...(중략)...그전에는 기업도시 그거 땀에 끝나고 마을이 양분화가 돼 있었죠...(중략)...그런 거를 많이 없애는 데 기여를 했죠.

박찬훈 : 우리 마을에 옛날에는 그 서당이 유명하고 선비들 그런 걸로 자랑거리가 됐지만. 중간에는 사장이 됐었는데, 낙화놀이 이놈이 복원되면서 하나의 또 이미지가 생겼지...(중략)...외지에서 온 분들이 젊은 사람들이 보조를 해주고 그래요. 이웃마을에서. 덕곡마을하고 협조가 잘 되야. 덕곡에 또 그런 일이 있을 때는 여기서 가서 도와주고 그라지. 그란게 그전에 왜냐면 여기 기업도시가 될 때 덕곡하고 이 마을을 폐동을 만들어, 전부 떠나게 하고 여기다 골프장을 맨들라고 했었어. 그 반대투쟁부터 같이 하더니 그만 그 인연으로 아직까지도 협조가 되더라고요. 저그 됐으면 낙화놀이고 지랄이고 아무것도 없지.

현재 복원되어 진행되는 낙화놀이가 예전의 방식은 아니지만 마을주민들의 교류를 촉진시키고 통합하는 공동체적 의의를 여전히 지니고 있다. 즉 낙화놀이는 마을의 원주민과 귀농인들이 만나는 기회를 제공한다. 귀농인들이 마을 공동의 일을 함께 하면서 공동체의 한 일원으로 귀속되도록 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노인들과 청년들 사이를 매개하는 구실을 하면서 세대를 통합한다. 물론 이 과정에서 일의 경중에 따라 오는 피로감이 작용하여 갈등이 없지 않지만 이장을 중심으로 마을의 공동행사인 낙화놀이의 분담 체계를 확보하고 운영함으로써 할 수 있는 한 갈등을 최소화하는 것을 원칙으로 일의 성과를 만들어내고 균등하게 배분한다.

복원 당시에 참여하게 대립했던 ‘기업도시’ 건설¹¹⁾에 대한 찬반 양론은 그 계획이 무산된 후에도 쉽게 풀어낼 수 없는 앙금으로 남아 있다. 낙화놀이는 이 앙금을 어느 정도 해소하면서 점진적으로 통합해가고 있다. 뿐만 아니라 그때 연대했던 덕곡마을과도 꾸준히 부조하는 전통을 새롭게 만들어 나가고 있다. 이러한 점은 낙화놀이가 지닌 공동체적 기반의 현재적 구현이라는 점에서 그 의의와 가치가 크다 하겠다.

두문마을 낙화놀이의 전통성은 네 가지로 정리된다. 첫째 마을공동체의 결속을 기반으로 하여 형성된 사회적 관계망 속에서 낙화놀이는 진행되었다. 둘째 자연에 밀착된 시간의 리듬이 만들어 내었던 세시절기를 축으로 하여 전승되었다. 셋째 세시절기에 따라 운영되었던 생활과 마을사회의 일들은 생업이 만들어내는 사회적 시간의 리듬에 따라 작동하였다. 즉 생업의 주기에 따라 구분되는 노동과 휴식의 마디를 따라 낙화놀이가 진행되었다. 넷째 마을공동체와 세시절기, 그리고 생업주기가 연계되어 형성된 사회적 기반 속에서 마을사회의 지속과 번영을 위해 이루어진 교육의 전통 위에서 낙화놀이는 진행되었다.

따라서 그것은 다양한 속성을 지닌 문화로 존재했다. 먼저 집단성으로 발현되는 공동체 문화로서 존재했다. 둘째 그러한 성격의 문화가 전승되어오면서 겪어온 변화가 놀이의 형식과 내용에 반영되어 있다. 그것은 불교적 요소와 유교적 요소, 그리고 민속적 요소를 두루 포괄하면서 형성되어온 역사성을 지닌다. 셋째 두문마을의 고유성이 특화되어 낙화놀이가 전승되었다. 넷째 낙화놀이는 공동체적 성격이 강하게 요구되어 전승되었지만 기본적으로 반촌으로서 두문마을이 지니는 신분적인 성격이 유교적 요소로 반영되어 있다. 다섯째 단절되어 사라질 위기에 처하였으나 전통을 잇고자 했던 바램과, 마을사회가 요구한 현실적인 문제들을 반영하여 복원된 낙화놀이라는 점에서 현재성을 지녔다.

11) 이에 대한 내용은 이영배, 「복원의 다의성: 전승과 창조의 딜레마」, 『실천민속학연구』 14, 실천민속학회, 2009, 267~305쪽 참조

정리하자면 두문마을의 낙화놀이는 전통적인 마을사회의 세시풍속으로서 존재했던 것이며, 마을사회가 유교적으로 재편되는 과정에서 망실된 불교문화의 흔적을 곳곳에 지니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근거는 홍감재 및 두람재와 흑룡산 절터라는 마을사회의 역사문화적 장소에 대한 마을사람들의 구술기억에서 찾아볼 수 있다. 첫째 홍감재는 1948년에 반남 박씨 중종 재각을 이용하여 마을 서당을 꾸려 교육을 실시하던 교육장소였고, 현재도 박씨 문중에서 매년 시제를 지내고 있다. 두람재는 고종 9년(1872)에 학문과 덕망이 높은 마을의 선비들이 모여 향약을 만들고 두람재를 건립하였다. 이 두람재와 홍감재를 바탕으로 1948년 반남 박씨 중종 재각에 중학강습소를 설립했다. 이 중학강습소를 기반으로 안성중고등학교가 설립하게 된다. 둘째 마을 위쪽으로 두문이산이라고도 불리는 흑룡산이 있다. 이 흑룡산 서쪽 중턱에 절터가 있다. 지금은 이 절터에 과수원이 들어서 있다. 반남 박씨 문중에서 예전에 이 절터에다 묘를 쓰고 절을 폐철했다고 한다. 그 위로 수덕골이라는 곳이 있는데 흑룡산 절에 속한 암자가 있었으나 지금은 사찰 표지와 축대·기왓장의 흔적만 있을 뿐이다. 절이 폐철된 이유는 조상의 음기가 절 때문에 감응되지 못한다고 하여 절을 없애고 그 자리에 반남 박씨 묘를 썼다고 한다. 이 이야기는 조선시대 이단 혹은 벽사 철폐라는 국시(國忌)에 따라 불교가 억압되었던 억불숭유(抑佛崇儒)의 역사적 과정을 반영하고 있다. 또한 마을 단위에서 그러한 국시가 구현되었던 저간의 사정을 반영한 것으로, 두문마을 문화의 유교적 재편을 함축하고 있기도 하다.

서당교육의 현장이자 낙화놀이 주체들인 학동들이 지내던 홍감재의 건축적 요소 속에 불교와 유교의 교섭과 재편의 흔적이 남아 있으며, 반남 박씨 조상의 묘소가 흑룡산 절터를 토대로 조성되었다는 사실에서 그 불교적 요소의 변용을 시사받을 수 있다. 이러한 마을사회의 유교적 재편 속에서 서당을 중심으로 꽃 피우고 지속되었던 유풍의 문화가 바로 두문마을의 낙화놀이를 형성하고 전승시킨 핵심 요소가 된다. 따라서 두문마을 낙화놀이의 문화적 위상과 그 가치는 기저에 놓인 세시풍속의 성격과 불교문화의 요소를, 유교 문화의 형식 속에서 내용적으로 융합한, 두문마을 고유의 공동체 문화라는 데 있다.

3. 놀이 감성의 문화적 형식과 의미

낙화놀이에서 발현되는 놀이 감성의 문화적 형식은 서당의 주된 교수방법이었던 강(講)을 매개로 주조되었다. ‘강’이란 이미 배운 글을 소리 높여 읽고 그 뜻에 대해 질의응답하는 전통적인 교수방법이었다. 강은 대개 순강(旬講)·망강(望講)·월강(月講) 등으로 구분되나, 서당에서는 대개 일강(日講) 위주였다. 강에는 배강(背講)과 면강(面講)이 있었다. 배강은 암송강독이었고 면강은 교재를 보면서 읽는 임문강독(臨文講讀)이었다. 강을 하고 난 뒤에 전개되는 질의응답은 기계적인 기억에 빠지기 쉬운 함정으로 부터 건져주었으며, 또 1 대 1의 대면학습이었기 때문에 능력별 수업이 가능하였다. 또한 이러한 방식을 통해 훈장과 학동의 인격적인 교류가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강을 하는 데는 일정한 절차가 있었는데, 이를 강의(講義)라고 하였다. 서당교육에서도 곳에 따라서는 서원의 강의와 같이 백록동규(白鹿洞規)나 향약을 낭독하기도 하였고, 사석(師席)에 대한 엄숙한 의식이 있었다. 그러나 대부분의 서당에서는 진퇴에 있어서 정중한 배례와 동접간의 읍례(揖禮, 읍을 하는 예의)를 하는 정도였다고 한다.

서당교육의 특색은 계절학습에 있었다. 즉 계절과 학습의 내용 및 방법을 조화시켰던 것이다. 예컨대, 겨울에는 경사(經史)와 같은 어려운 학과를 하게 하였고, 여름에는 시율(詩律)과 같은 흥미본위의 학습을

시행하였다. 봄·가을에는 사기나 고문과 같은 글을 읽게 하여 선비로서의 뜻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되게 하였다. 봄·가을에는 밤이 짧기 때문에 야독이 없는 대신에 사을을 짓게 하였으며, 글을 읽고 난 다음, 오후에는 서예를 익히게 하였다. 이는 점심을 먹은 오후에 학동들의 집중력이 떨어져 줄 수 있기 때문이었다. 하과와 같은 피서교육이나 계절학습도 있었다. 하과는 원래 고려시대 최충(崔冲)이 설립한 문헌궁도(文憲公徒)에서 시작되었다 한다. 그 뒤 십이도(十二徒) 전체가 매년 여름철이면 고요하고 시원한 산방(山房)을 빌려 시회(詩會)도 열면서 조출한 잔치를 가지게 되었는데, 이를 일명 하천도회(夏天都會)라 부르기도 하였다. 서당의 하과는 이와 같은 격식은 차리지 않았으나 유사한 유풍이 전승되었다.

계절학습과 함께 서당교육의 방법으로 빠뜨릴 수 없는 것은 유희학습 또는 여가선용의 학습이라 할 수 있다. 서당의 학동은 한창 놀이를 즐기는 나이였기 때문에, 학습보다는 유희나 악희(惡戲)에 관심을 더 가지는 경향이 있었다. 서당교육에서는 아동의 이러한 심성을 활용하여 놀이를 통한 학습방법을 시행하였다. 예컨대, 쌍륙(雙陸·雙六)놀이를 이용한 ‘종정도(從政圖)놀이’로서 경외관직명(京外官職名)을 익히도록 하는가 하면, ‘고을 모듬’이라 하여 8도의 각 고을 이름을 외우도록 하였다. 그리고 ‘초(初)·중(中)·종(終) 놀이를 통하여 옛 사람의 시구(詩句) 한 구절을 부름으로써 그 대구(對句)를 찾는 일종의 시공부 놀이를 하기도 하였다. 조금 정도가 높은 학동들의 경우에는 ‘화승작(火繩作)’이나 ‘각촉부시(刻燭賦詩)’와 같은 글짓기 겨루기 놀이를 하였다. 또 투호(投壺)와 같은 놀이도 병행되었는데, 이러한 학습 방식은 학동들의 처지와 심신을 고려하여 유희와 학습을 연계시켰다는 데 그 핵심이 있다.

강이라고 했어. 그때. 그 왜냐면 주욱 앉혀놓고 여 어른들이, 선생님하고 동네 지식층들 두어 분 앉아서 아를 돌려놓고 너 몇 페이지 읽어봐라 이래서 그놈을 읽으면 합격하면 인자 과자도 주고 상품을 주고 그렇게 서당도 그날은 강도 열고 그래서 뭐 축제 분위기였었죠. 그래 했는데 그런 것이 전부 사라졌는데.

두문서당에서는 훈장과 학식 있는 동네 어른이 학동들을 대상으로 강을 열었다. 학동들은 훈장과 동네 어른을 앞에 두고 앉아 있다가, 차례로 호명 받게 되면 뒤돌아 앉아서 그동안 배웠던 과목 중 어떤 대목을 암송하게 된다. 이런 방식은 일종의 배강(背講)의 형태였다. 배강을 통해 그동안 갖고 닦은 학습 성과를 훈장과 함께 동네 어른들이 점검하는 것이었다. 학동이 이를 통과하면 그에 따른 보상이 있었다. 즉 “읽어봐라 이래서 합격하면 과자도 주고 상품을 주”었다고 한다. 그러니까 서당에서 강이 이루어지는 날은 서당의 잔치이자 마을 축제가 되었던 것이다. 왜냐하면 두문의 서당은 동계서당으로 서당의 존재 방식이 마을공동체 전체에 귀속되고, 아이들의 교육이 마을공동체의 범주 속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특히 ‘서당계’를 통해 그 교육적 기반을 마을공동체 차원에서 마련해왔기 때문에, 두문 서당의 강은 단지 서당에만 귀속되는 것이 아니라, 마을 전체가 함께 하는 잔치가 되었던 것이다.

일년에 두 차례 강을 여는데, 강할 때는 학부모들이 다 와. 강을 열 때는. 일년에 두 차례 여는데. 강을 열 때는 참 다 와서. 그런게, 그 아들이, 지 아들이 잘하고 못하고 평가를 하거든. 책을 딱, 배우는 책을 딱 갖다 훈장님한테 퍼노른 예를 들어 돌아 앉아라 해놓고는 너 몇 쪽 몇 줄 그거 읽어봐라 하면. 첫문에는 어느 구절을 갈치줘. 읽어봐라 하든, 돌아서서 그걸 전부 암기를 하는 기라. 그러든 암기를 하고 난 다음에는 뜻을 새기는 기라. 그래 인자 한 쪼가리 한 페이지든, 두 페이지를 읽고 나면 인자 통과를 하든 상을 줘 또 예를 들어 과자봉지를 사다주고 옛날에는 그런 거지. 무슨 큰 연필 공책도 없고 그러. 과자도 일정 때 샌빼니 아미다마니 이런 거지 뭐 아들 좋아하는 거. 요새 저저 뭐 파삭파삭 하니 그거 뭐라고 하더라, 거 있어, 압씩하니 군 과자가 있어. 과자집에서 만든 과자가 있어. 그런 거 인제 주고 뭐 알사

탕, 알사탕, 알사탕이라고 그러지. 그런 거 한봉지씩 사다, 그전에 그거 귀한게. 그렇게 얼마나 좋아. 아들 주고 학교 댕길 때 걸으면, 공책 같은 것 이런 것도 줬지만 그런 것도 없었다고 그래 주고 못하는 놈은 종아리 맞아 또 이래 건고 종아리 몇 대 맞고 틀리면 나가라고 그러고 더 공부하라고 더 그러지. 다시 하라고 못 하는 데 어떡혀. 자기 눈으로 뭐 자기가 다 보는건데. 우열이 여럿이 있는 데서 인제 나지. 우열이 가리지. 가문 저 꾸중을 많이 듣지. 너 이놈 누구는 그렇게 하는데 너는 왜 못하냐. 옛날에는 참 어릴 땐 맞고 크다시피 했어 그냥. 때리면 제일인줄 알고 엄하게 해서. 거 잘못한다고 얻어맞기도 하고, 부모도 때리고 선생도 때리고 얻어맞기도 많이 하고 그랬지. 요새 세상에 참.

강은 일 년에 두 차례에 열렸다고 한다. 따라서 이렇게 열린 강은 일반적으로 서당에서 열린 일강(日講)은 아니다. 그렇다고 열흘 단위로 열리는 순강(旬講)도, 보름 단위로 열리는 망강(望講)도 한 달에 한 번 열리는 월강(月講)도 아니다. 이러한 강의 형태들은 강이 열리는 주기에 따라 구분되는 것이므로, 굳이 구분하여 지칭하자면, ‘반년강(半年講)’이라 하겠다. 어쨌든 두문 서당에서 1년에 두 차례 강을 열었는데, 그때에는 서당 학동들의 부모들이 자식의 학습 상태를 확인하고자 모두 참여했다고 한다. 암기 테스트와 그 말뜻을 이해하고 있는 점검하는 뜻풀이 시험은 부모들이 모두 모인 자리에서 시행되었다. 시험을 무사히 통과하면 상이 주어졌는데, 이러한 상은 학동들로 하여금 공부에 더욱 매진할 수 있게 하는 자극제가 되었다. 상으로는 흔히 아이들이 좋아하는 과자를 제공하였는데, 예를 들어 일제 강점기 때에는 ‘샌빠’나 ‘아미다마나, 그리고 ‘알사탕’ 같은 것들이었다. 이와 반대로 시험을 통과하지 못할 경우에는 벌이 주어졌다. 벌은 ‘종아리’를 때려 훈계하는 식이었다. 시험 과정을 통해 학동들의 우열이 가려지면, 그 결과에 따라 부모들의 희비도 엇갈렸다. 이처럼 강은 시험에 통과한 학동들에게는 공부에 재미를 느껴 더욱 매진할 수 있도록 하는 유인제가 되었고, 시험에 불합격한 학동들에게는 좀 더 정진하게 하는 자극제가 되었던 것이다.

강을 열 때는 그런 때도 허드라고 지방의 그 유지들 있잖아. 고매하신 분들도 청을 허더라고 더러 간혹. 그래가지고 같이 구경을 하고 근게 강은 하루 종일 하는 게 아니라 한 두어 시간씩 허고 나면 결국 지금으로 말하면 연회를 한다고 그러고 나서 구경하는 것이 낙화놀이를 구경하고 그런 거야. 그런데 이제 저녁에는 강이 다 끝나지. 인제 오전에 강은 끝나고, 그런게 이제 선생님들 그런 사람들은 연회하고 나머지는 풍악도 치고 인제 즐기는 기라 음식도 먹고 인제 그 날은. 없는 사람도 잘 먹고 그러는 기라. 그런데 상당히 기다리지. 없는 사람은. 그날은 고깃집도, 옛날엔 상 당해도 없는 사람은 손님 초대하든 돼지고기 두어 접, 이제 나물쪽에 놓고 이래 해줬잖아. 그런게 그런 것이 귀했다고 음식거리 먹을 거리가. 그런게 그날은 없는 사람들은 많이 기다리지. 있는 사람들이 베푸는 날인게. 그런게 혼연일체, 없는 사람, 있는 사람, 잘난 사람, 못난 사람 혼연일체가 되니까.

앞에서 서당의 일반적인 학습 체계를 다루면서 유희학습 또는 여가선용의 학습을 거론하였다. 두문 서당도 이 유희학습 혹은 여가선용학습이라 할 수 있는 서당문화가 있었다. 이를 유희와 학습 혹은 놀이와 공부를 연계시킨 것이라 했는데, 두문서당에서는 반년에 한번 열리는 ‘강(講)’과 맞물려 ‘낙화놀이’가 연계되었다. 강을 열 때 두문마을 주민들뿐만 아니라 지방의 유지들 중 학식이 고매한 선비나 학자들이 초빙되었다고 한다. 강은 하루 종일 진행되지 않았다. 강은 한두어 시간 정도 진행하고 나머지 시간은 연회를 열었다 한다. 이 연회의 연장선상에서 저녁이 되면 ‘낙화놀이’가 연행되었던 것이다. 물론 학동들은 ‘강’이 끝나면 일종의 접장이 주동이 되어 낙화놀이를 위한 준비에 들어갔다. 연회는 혼장이나 동네 어른, 그리고 초빙된 지방 유지들이 즐겼다. 때로 음주를 즐기며 시도 짓는 그야말로 양반들의 연회가 기억되고 있다. 이와 같이 강이 열리는 날은 특별한 날이므로 일상과는 다른 잔치음식이 풍성하게 차려

졌다. 즉 “선생님들 그런 사람들은 연회하고 나머지는 풍악도 치고 즐기는” 날이었다. “없는 사람도 잘 먹고 그러는” 날이었기 때문에 “없는 사람은 그 날을 상당히 기다”렸다 한다. 왜냐하면 강이 열리는 날은 “있는 사람들이 베푸는 날”로 그것을 통하여 “없는 사람, 있는 사람, 잘난 사람, 못난 사람” 구별 없이 “혼연일체가 되”었기 때문이었다.

우리 알기로는 서당이 사월 초파일날이나 이런 데. 옛날에는 그 민속명절이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알기에는 보통 사월 초파일, 칠월 칠석날 불교 계통어. 그때 많이 하더라고 그러면 서당에서는 인제 그때는 왜냐면 장년들도 많이 했다고요. 보통 20대 가까운 사람들. 그런 분들은 그걸 맨들어서 하고 마을에서 추렴도 하고 있는 사람들은 추렴을 하고 없는 사람 노동력으로 제공해서 그런 걸 맨들고 그랬다고 왜냐면 그날 먹고 노는 경비지. 쌀도 두어 되씩 내고 옛날에는 뭐. 없는 사람들은 노동력을 제공한게 아니라 인자 나무에다 태워서 뿌사서 만들고 있는 사람들은 뭐 돈도 내고 쌀도 내고 이래서 먹을 걸 그날하고.

낙화놀이는 이처럼 강이 열리는 날, 서당을 중심으로 마을주민들과 지역민들이 함께 모여 연행했던 서당풍속의 한가지였다. 강이 열리고 낙화놀이가 연행되는 날은 세시절기와 농사주기를 고려하여 선택되었다. 즉 “그전에는 달달이 오월 단오 이런 게 있는데, 바쁠 때는 못하고 겨울에는 또 추운 게 못하고”에서 보듯이, 세시와 생업, 그리고 기후에 대한 고려 속에서 가장 적합한 절일(節日)이 선택되었던 것이다. 사월 초파일이나 칠월 칠석에 낙화놀이가 연행된 까닭은 바로 이러한 조건들에 그 절일(節日)들이 가장 부합하기 때문이었다. 즉 “사월 초파일부터는 야외행사를” 해도 되었고 칠월 칠석과 같이 일꾼들이 쉬는 세시절일에, 강도 열리고 낙화놀이도 연행되었던 것이다. 평소보다는 비교적 많은 사람들이 두문 서당을 중심으로 한 이 축제의 공간에 모여 들었기 때문에, “있는 사람들은 추렴을 하고 없는 사람은 노동력을 제공해서” 그날의 축제를 즐겼던 것이다.

1925년 최영년(崔永年)의 『해동죽지(海東竹枝)』에는 낙화놀이가 ‘유화설(流火雪)’이라는 제목을 달고 출현하고 있다. 즉 옛 풍속에 4월 8일 숯가루를 넣은 주머니 수천 개를 만들어 숲 사이에 달아 놓고 불을 붙이면 눈과 같이 펄펄 쏟아진다. 이것을 ‘줄발’이라고 한다고 기록해놓았다. 그러면서, “수많은 등불들이 하늘의 별들처럼 반짝이니/관등절날 저녁은 하늘에서 노는 것 같아/눈들은 오로지 영롱히 반짝이는 곳으로 쏠리느니/푸른 나무 그늘 속에 눈처럼 흘러내리는 불꽃들”과 같이 그 놀이의 정황을 기록해두었다. 이 기록에서 우리는 세시절기에 따라 주기적으로 행해졌던 불꽃놀이의 전통성을 알 수 있으며, 놀이 형태와 방식에 있어서 현재 두문마을의 그것과 매우 유사하다는 것도 알 수 있다.

일제강점기 무리야마 지준은 전북 진안의 불꽃놀이를 음력 4월 초파일 날 일반인들이, 도토리 껍질을 반쯤 구워 가루로 만들어 솜과 함께 길쭉하게 썬다. 이것들을 긴 장대에 매달아 불을 붙여, 그 불꽃이 아름답게 훑날림을 바라보며 즐긴다고 기록했다. 또 임실의 불꽃놀이에 대해서는 음력 사월 초파일 날 소년들이, 뽕나무를 태워 솜을 만든 뒤 한지로 직경 4cm, 길이 30cm 정도의 크기로 만든 자루 속에 넣고, 그 중앙에 십자통을 몇 개 만들어 길이 4.5m의 장대에 매단다. 밤이 되면 이 십자에 불을 붙인다. 그러면 반짝반짝 불꽃이 흩어져 마치 불이 떨어지는 것 같은 광경을 볼 수 있다고 적어놓았다. 그리고 순창의 불꽃놀이는 음력 4월 초파일날 유림들이, 장대를 높이 세우고 그 장대를 중심으로 팔방으로 새끼줄을 늘어뜨린다. 그런 다음, 그 장대 끝에는 커다란 등을 달고, 그 새끼줄들에는 작은 등과 불꽃을 단다. 이 불꽃은 도토리나무나 도토리 껍질로 만든 숯가루를 지름 10cm, 길이 20cm 정도 되는 종이봉투에 넣어서

만든다. 등과 불꽃을 많이 매달고, 그 아래에서 시 모임이나 작은 연회를 열고, 시간을 정해 일제히 불을 붙여서, 그 등불을 밝힌다. 또한 그 불꽃들을 터뜨려 불꽃들이 떨어지는 광경을 보고 즐긴다고 기록해놓았다.

이 기록에서 진안·임실·순창의 불꽃놀이가 모두 4월 초과일에 행해진 세시풍속이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고, 세부적인 부분이 서로 다르지만 재료의 제작과 놀이 방식은 서로 유사하며, 특히 설치대가 모두 '장대'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놀이 주체가 진안에서는 일반인들, 임실에서는 소년들, 순창에서는 유림들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서 이 낙화놀이가 지역의 사회적 맥락에 따라 충분히 다양하게 전개될 수 있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문헌기록상의 역사적 전거는 『삼국사기』·『고려사』·『고려사절요』·『조선왕조실록』 등과 같은 역사문헌, 『열양세시기』·『동국세시기』 등과 같은 세시풍속문헌, 그리고 『퇴계선생문집』·『점암선생연보』·『구당집』·『금석집』·『행산유고』 등과 같은 개인문집류 등에 단편적으로 나타난다. 대개 4월 초과일 풍속의 관동·관화 풍속의 연원, 궁중의 관동·관화 행사의 양상, 양반들의 뱃놀이와 관화 놀이의 양상 등이 이러한 기록을 통해 알 수 있는 내용들이다.

이와 같은 문헌기록과, 현재까지 논의한 내용을 요약하여, 두문마을 낙화놀이의 역사문화적 성격을 다음 같이 정리해볼 수 있다. 첫째 두문의 낙화놀이는 고래의 상원(上元) 풍속에서 유래하고 있다. 둘째 그러한 상원 풍속으로서 불놀이가 불교의 연등회 혹은 팔관회와 맞물려 불교의례적 성격을 가미한 방식으로 전개되었다. 셋째 거기에 정치적인 의미가 더해지고 민간의 집단적 놀이 전통이 분출하면서 다양한 양상으로 분화되었다. 이러한 문화사적 전개에서 주목되는 것은 민속불교적인 집단적 유희 전통이 유교에 의해 일정하게 교정되었다는 점이다. 한축으로는 불놀이가 지닌 역사적 갈래를 두루 함축하면서 대보름 또는 초과일 풍속으로 나타났고 다른 한축으로는 유가(儒家)에 의해 형식적으로는 다채로워지고 내용적으로는 유풍(儒風)이 강화되는 양상으로 나타났다. 요컨대 두문의 낙화놀이는 바로 이러한 불놀이의 변화와 분화의 과정 속에서 만들어지고 연행되었던 것이다.

두문마을의 불교 풍속은 마을사의 전개 과정에서 유교 풍속의 강화와 함께 약화되었다. 마을사회 운영에서 유교적 질서가 강조되고 사회연결망도 '서당계'로 집중되는 과정에서 그 흔적만 남아 있을 정도로 전락했다. 절터는 묘소로 바뀌었고 사찰의 건축물은 제실의 마루로 활용되었다. 이 과정에서 풍속의 양상은 소수 마을민의 초과일 개인불공으로 나타났고 더러는 삼짍에다 연등을 달아놓기도 했지만 지배적이지는 않았다.

분명한 사실은 제보자가 일곱 살에서 여덟 살 무렵 당시 서당에 다니던 서상채라는 사람이 낙화놀이를 준비하고 실행하던 일이다. 이 낙화놀이에 대한 기억의 시점은 일제강점기 무렵이다. 제보자는 서상채가 낙화놀이를 했던 과정을 매우 구체적으로 기억하고 있다. 제보자도 당시 서당에 다닐 무렵이었기 때문에 서당의 교육과정에서 필요에 의해 행해졌던 낙화놀이를 경험했다. 그렇기 때문에 세부적인 사항까지 잘 기억하고 있는 것이다. 제보자와 서상채는 '스물 댓살' 혹은 '서른 살'의 차이가 있었으므로, 그때 당시 서상채의 나이는 서른 두 살에서 서른 다섯 살 혹은 서른 일곱 살에서 서른 아홉 살 정도 되었을 것이다. 늦은 나이에 서당에 다녔고 또 낙화놀이를 주도했던 것으로 미루어 보건대 그는 두문 서당의 '접장'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기억을 더듬는 과정에서 좀 더 확실해진 것은 제보자가 낙화놀이 단절 시점을 일곱 살 무렵으로 확정

지은 것이다. 제보자는 자신이 일곱 살 때 초등학교에 입학했으므로 그때가 1938년이라고 확정했다. 그런데 낙화놀이가 더 이상 전승될 수 없었던 이유는 낙화놀이 연행의 물적 기반이 무너졌기 때문이다. 일제의 강제징용으로 인하여 낙화놀이를 실질적으로 준비하는 인적 기반이 상실되었고, '공출'로 인하여 마을의 살림살이가 파폐해졌다. 뿐만 아니라 '핍박'으로 인하여 언어가 통제되고 문화가 억압 당하는 상황에서 더 이상 낙화놀이를 연행할 수 없게 됨으로써 전승이 단절되고 말았던 것이다.

일제강점기에, 낙화놀이 전승 기반이었던 마을공동체가 파폐해지는 과정에서, 1938년 낙화놀이는 단절되었다. 그러나 2007년에 그 단서가 조금씩 구체화되면서 복원되기에 이른다. 제보자 박찬훈 옹은 기억을 더듬어서 재료를 구해 낙화봉을 제작하고 실현하였다. 낙화놀이는 비록 반촌으로서 이 마을의 유풍(儒風)이 반영되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구술문화의 전통 속에서 전승되어오던 마을공동체 민속문화이다.

제보자가 1930년생이므로 7살부터 9살까지 3년 정도 서당에 다닌 그 시점은 1937~39년이 된다. 이 시기에 제보자는 서당교육을 받으면서 서당풍속을 경험하고 습득하게 된다. 서당 서생들이 주도하여 연행했던 낙화놀이에 대한 기억은 이때 형성된 것이다. 제보자가 직접 서당에 다니면서 낙화놀이를 체험했기 때문에, 낙화놀이에 대한 그의 기억들은 매우 생생할 수밖에 없다. 그런 까닭에, 낙화놀이의 시기와 제작 공정, 그리고 연행 과정 등이 상세하게 복원될 수 있었고 단절되었던 전승력까지 확보하여 일종의 서당풍속으로서 재현될 수 있었다.

참고 문헌

- 과학원 고고학 및 민속학연구소 민속학연구실, 『북한 문화예술 1: 조선의 민속놀이』, 푸른숲, 1988.
- 국립민속박물관 편, 『조선대세시기』 III, 2007.
- 권오신, 「낙화놀이·사랑의 빚거리 등 돋보여」, 『전북일보』, 2008. 8. 25.
- 권은영, 「무주 안성 낙화놀이의 놀이 방법과 특징」, 『무주 안성 낙화놀이 학술 세미나 자료집』, 2007.
- 김경석 편저, 「두릅재향약」, 『(국역)적성지(地)』, 무주문화원, 2000.
- 김익두, 「낙화놀이의 지역적 분포와 유형에 관한 민족지적 고찰」, 『한국민속학』 48, 한국민속학회, 2008, 111~140쪽.
- 김익두, 「무주 안성 낙화놀이/줄불놀이의 연원과 그 문화적 의미」, 『무주 안성 낙화놀이 학술 세미나 자료집』, 2007.
- 김익두, 「무주 안성 낙화놀이 조사 연구」, 무주군, 2009.
- 김재규, 「하회 선유 줄불놀이: 민속놀이의 재현 보고」, 안동문화원, 1991.
- 김창현, 「꽃비 내리듯 반딧불 날리듯, 무주 안성 두문마을 낙화놀이」, 『전라도닷컴』, 2007. 6. 25.
- 류진동, 「명품 도자 감동은 계속된다」, 『경기일보』, 2008. 4. 3.
- 류진동, 「여주 해촌 조기울마을 매년 정월보름에 전통 불꽃놀이」, 『경기일보』, 2006. 2. 16.
- 무라야마 지준, 박전렬 옮김, 『조선의 향토오락』, 집문당, 1992.
- 문화재관리국, 『한국민속종합조사보고서(경상남도편)』, 1972.
- 문화재관리국, 『한국민속종합조사보고서(충청남도편)』, 1975.
- 문화재관리국, 『한국민속종합조사보고서(충청북도편)』, 1976.
- 박대길, 「조선후기 적상산사고 연구」, 전북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0.
- 박영수, 「미산 '불꽃낙화&미더덕' 축제 오세요」, 『문화일보』, 2008. 4. 11.
- 박정양, 최강현 옮김, 『조선시대 포쇄일기』, 신성출판사, 1999.
- 박종익, 「낙화놀이」, 국립민속박물관 편, 『한국세시풍속사전』 정월, 2004.
- 서수용, 「하회의 민속놀이」, 『안동하회마을』, 안동문화원, 1996, 289~355쪽.
- 유중선, 「하회 불꽃놀이 소고」, 『안동문화총서』 권1, 안동대학교 안동문화연구소, 1989.
- 이경복, 『한국민속의 세계 5: 세시풍속·전승놀이』,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2001.
- 이영배, 「놀이 전통의 문화적 기반과 특징」, 『감성연구』 12, 전남대학교 호남학연구원, 2016, 139~198쪽.
- 이영배, 「두문 낙화놀이의 문화적 특이성과 미적 특징」, 『실천민속학연구』 27, 실천민속학회, 2016, 353~396쪽.

이영배, 「복원의 다의성: 전승과 창조의 딜레마」, 『실천민속학연구』 14, 실천민속학회, 2009, 267~305쪽.

이영배, 「하회선유줄불놀이 복원과 변용의 다층성과 역동성」, 『비교민속학』 48, 비교민속학회, 2012, 331~371쪽.

임재해, 「뱃놀이의 전통과 물놀이동의 정서」, 『민속마을 하회여행』, 밀알, 1994, 290~298쪽.

정학구, 「미산·함안서 낙화(落火)축제」, 『연합뉴스』, 2005. 5. 11.

조성우, 「풍년 기원하는 수천개 불꽃의 향연」, 『경남연합일보』, 2008. 5. 8.

조현열, 「이수정 낙화놀이가 '함안읍성 낙화놀이'로 변경」, 『경남도민일보』, 2008. 5. 8.

최영년, 황순구 역주, 『속악유희』, 정음사, 1986.

한국민속사전편찬위원회, 『한국민속대사전 1』, 민족문화사, 1991.

한양명, 「줄불놀이」, 『한국세시풍속사전(여름편)』, 국립민속박물관, 2005.

한양명, 『물과 불의 축제 : 선유·낙화놀이의 전통과 하회선유줄불놀이』, 안동시, 2009.

현진주, 「무주 안성낙화놀이의 재현 양상과 문화적 의미」, 안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8.